

전북 금융권 대출 증가세... 기업자금 회복 뚜렷

10월 수신 1조8051억원 감소... 예금은행 중심 유출 확대

10월 들어 전북지역 금융기관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침체됐던 자금 흐름에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되 하락 폭은 크게 줄었다. 다만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수신이 급감하면서 지역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0월 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1,639억 원 증가해 전월(-1,635억 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며 여신 회복을 이끌었다. 예금은행 여신은 전월 1,633억 원 감소에서 10월 1,454억 원 증가로 전환됐

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도 소폭이지만 2억 원 감소에서 185억 원 증가로 흐름이 바뀌었다.

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이어가되 하락 폭은 크게 줄었다. 다만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수신이 급감하면서 지역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0월 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1,639억 원 증가해 전월(-1,635억 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서며 여신 회복을 이끌었다. 예금은행 여신은 전월 1,633억 원 감소에서 10월 1,454억 원 증가로 전환됐

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도 소폭이지만 2억 원 감소에서 185억 원 증가로 흐름이 바뀌었다.

월(-666억 원)에 이어 감소세를 유지했다. 다만 감소 폭은 크게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신규 취급이 이어지며 하락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타대출은 315억 원 증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10월 말 기준 전북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 잔액은 73조 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이 52.1%,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47.9%를 차지했다. 기업대출 비중은 57.9%로, 가계대출(35.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수신 부문에서는 자금 이탈이 크게 확대됐다. 10월 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1조 8,051억 원 감소해 전월(-129억 원)보다 감소 폭이 급격히 커졌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 수신이 2조 935

억 원 감소하며 전체 수신 감소를 주도했다.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자금이 투자 상품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한 데다, 기업의 자금 집행이 늘어난 점도 수신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2,884억 원 증가해 전월(2,098억 원)보다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다. 상호금융과 신협회사 등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으나, 예금은행 수신 감소 규모가 워낙 커 전체 수신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월 말 기준 전북지역 총 수신 잔액은 104조 8,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중은 57.0%로 예금은행(43.0%)을 웃돌았다.

한편 이번 통계는 잠정치로, 향후 일부 수치는 조정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화재에도 멈추지 않는 연금 서비스 구축

국민연금공단, 공공부문 최초 데이터센터 리튬배터리 외부 이전

국민연금공단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연금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안전 체계를 구축했다.

전력 중단 시 데이터센터의 비상 전원으로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외부 전용 시설로 이전해, 화재 발생 시에도 연금 지급과 민원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센터 핵심 전원 설비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처음이다. 리튬배터리는 대규모 전산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지만,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전산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이러한 위험 요소가 데이터센터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배터리를 센터 외부의 독립된 전용 시설로 이전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의 복구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 자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구조적 안전 조치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선제적 재난 대응 역량은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국가핵심기반 재난 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기업경기전망지수 79' 부진 장기화 우려

2026년 1분기 조사 결과... 7분기 연속 기준치 하회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이 내년 1분기에 뚜렷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금융비용 증가, 내수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장기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김제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26개사를 대

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9로 집계됐다. 이는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2024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한 것이다.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우세함을 뜻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북지역 제조업 전반이 여전히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 기업 분포를 보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41.3%로 가장 많았고,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8.9%,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대다수 기업들이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현 수준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향후별 전망도 전반적으로 어두웠다. 매출액 전망은 80, 영업이익 78, 설비투자 80, 자금사정 71 등 모든 지표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자금사정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기업 경영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도 모든 제조업종의 BSI가 100을 밑돌며, 전북 제조업 전반의 경기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환율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의 BSI가 92, 중소기업은 75로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압박이 더욱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고병원성 AI 비상 방역대책 회의 개최

전북농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농협은 최근 국내 가금농장에서



전북농협은 최근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전북 지역에서도 연이어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비상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전북 지역에서도 연이어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비상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한 현재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빈틈없는 방역 체계 유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가금농가를 중심으로 공동방제단의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도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내·외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숙지와 실천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는 등 향후 방역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신입 부행장 6명 선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입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26일 신입 부행장 6명을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본부와 영업점, 계열사 등에서 전문성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인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신입 부행장에는 양광영 외국인영업본부장, 박재현 IT개발부장, 최종구 군산지점장, 조인성 전주시청지점장이 선임됐으며, 하범서 JB유망주주 인재개발부장과 노익호 JB우리캐피탈 투자금융본부장은 전북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내년 1월 1일자로 부행장에 임명된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

농촌진흥청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과 탄소중립 기술 등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공모 신규 과제는 6대 분야, 총 16개 사업 118개 과제, 총 595억 원 규모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중심의 혁신 기술 개발과 농업인의 체감 성과 창출을 목표로 연구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미래 스마트농업 확산 분야에서 AI 기반 작물 모니터링·진단 플랫폼과 위성영상 활용 기술 등 21개 과제(약 125억 원) △바이오·푸드테크 산업 육성 분야에서 대체단백원료화 기술과 특용작물 유래 바이오

소재 생산 등 17개 과제(약 153억 원)를 지원한다.

또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분야에서는 축산자원 활용 탄소저감 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체계 구축 등 40개 과제(약 137억 원)가 포함됐다. △식량주권 확보 분야에서는 밭농업 생산성 향상과 가축 생산비 절감 기술 등 22개 과제(약 98억 원)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성장 및 안전·행복한 농촌 조성을 위한 치유농업 서비스 플랫폼과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 등 11개 과제(약 60억 원), △K-농업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 표준화 협력 등 7개 과제(약 22억 원)도 포함됐다.

공모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역량 있는 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신년인사회·전북경제대상 시상식 개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과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를 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오는 1월 5일 라한호텔 전주에서 '2026 신년인사회 및 제20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정태 회장을 비롯해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경제계,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도민들에게 새해 인

사를 전하고, 2026년 전북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20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올해 전북경제대상 대상은 (주)창해에탄을 이연희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분상기업 부문은 풀무원다논(대표이사 홍영선), 분상경영인 부문은 삼양화성(주) 이영훈 대표이사가 각각 선정됐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